

# 일 전문대학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진로만족 영향요인

##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김정아  
서일대학교 간호과

Jeong-Ah Kim(jakim@seoil.ac.kr)

### 요약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진로만족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3년제 일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 131명이며 자료분석방법은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진로만족은 전공관련 진로인식, 전공관련 학습선호, 전공관련 활동참여, 전공학업 수행, 전공학업 집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교내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진로만족의 영향요인은 전공관련 진로인식, 전공관련 학습선호, 전공관련 활동참여, 전공학업 집중, 교내실습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개념은 진로만족을 63.0% 설명하였다. 특히 전공관련 진로인식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기에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간호전문직의 가치를 전달하고 간호철학 정립을 돕기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진로만족 | 진로인식 | 간호대학생 |

###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career satisfaction and its affecting factors for senior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1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one college located in Seoul. The data analyzed by using SPSS-WIN 18.0 program. Career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cognition of career related to major( $r=.690, p<.001$ ), learning preference related to major( $r=.666, p<.001$ ), participation of activities related to major( $r=.537, p<.001$ ), major performance( $r=.231, p=.008$ ), concentration of major( $r=.508, p<.001$ ), intrinsic motivation( $r=.357, p<.001$ ), problem solving ability( $r=.452, p<.001$ ), satisfaction of laboratorial practice( $r=.476, p<.001$ )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410, p<.001$ ). In addition, recognition of career, learning preference, participation of activities, concentra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of laboratorial practi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career satisfaction(63%).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career guidance program to improve career satisfaction considering these findings.

■ keyword : | Career Satisfaction | Career Recognition | Nursing Student |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전공학과 선택은 향후 진로와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대학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합격 가능성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미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 후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막연히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2]. 따라서 대학 생활이 향후 직업생활로의 이행을 앞두고 진로결정과 진로준비 행동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3]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진로탐색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간호사가 된 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직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내 3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평균이직률이 15.8%[4]로 다른 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이직률 2.16%[5]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혼돈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임상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6]. 그 중에서도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전체의 69%로[7] 국내 신입사원의 이직의도가 30%로 조사된 것[8]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간호직은 전문직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 많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를 훈련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직이 발생할 경우 조직과 개인이 치러야 할 비용 효과 손실이 크며 조직원의 사기 저하 및 전문적 서비스의 질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간호직은 타 직종이 경력이 쌓이면 이직하

는 것[9]과는 달리 입사한지 1년 이내의 이직률이 높으므로[7] 이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준비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대학 재학 중의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진로미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반면, 진로결정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결정자 가운데에도 외형상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로를 결정했으되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집단이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10]. 진로결정자라고 인식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들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이직률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과약을 위한 수단으로 관련 연구가 점차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간호대학생의 진로관련 연구로는 진로에 대한 인식[11], 진로정체감 관련요인[12], 진로태도성숙 영향요인[2], 진로탐색행동 영향요인[13] 등이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 진로성숙과 진로발달 향상을 위한 소수의 실험연구[14][15]들이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관련된 요인들[16]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진로만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는 '개인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라는 의미'로서 전공에 대한 선택 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 계열을 선택하여 학문을 하고 그 분야에 적합한 직업을 가질 것인가 등과 관련된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17]. 그리고 진로만족은 전공 선택에 대한 자신의 결정 및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과 관련되므로[18] 전공만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진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향후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므로[19] 간호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이 향후 간호사가 된 후 진로만족의 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졸업시점에서 진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진로만족과 관련요인이 확인된 진로선택 영향요인과 전공적응[17], 내적동기[20], 문제해결력[21]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의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학업 적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3. 용어 정의

### 3.1 진로만족

진로만족이란 개인의 직무에 대한 평가나 직무경험에 기인하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상태이다[22]. 본 연구에서는 박상진[17]이 Veenhoven[27]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이 간호대학 진학 및 직업으로써 간호사 선택과 관련되어 느끼는 학과만족과 전공만족 정도를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3.2 진로선택

진로선택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을 걸쳐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선택을 말한다[23]. 본 연구에서는 박상진[17]이 한국교육개발원[28]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로 전공관

련 진로에 대한 인식, 전공관련 학습에 대한 선호, 전공관련 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3.3 전공학업 적응

전공학업 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말한다[24]. 본 연구에서는 박상진[17]이 Baker와 Siryk[24]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로 전공학업 수행(학업적 노력의 효과)과 전공학업 집중(학업에 대한 몰입정도) 정도를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3.4 내적동기

내적동기란 어떠한 외적 목적이나 보상 없이 특정한 활동을 하려는 동기학습과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과제나 활동에 참여하려는 선천적 성향을 말한다[25]. 본 연구에서는 Harter[29]의 내적동기 평가 도구로 도전적 과제 선호 성향, 호기심에 의한 학습 참여 성향, 독자적 학습과제 완성 성향 정도를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3.5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26]. 본 연구에서는 Heppner와 Petersen[31]이 개발하고 장익수[26]가 수정보완한 문제해결력 척도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접근-회피스타일, 자기통제 정도를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3년제 일 간호대

학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 137명이다. 본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 power 3.1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양측), 85% power,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0.15), 예측변수 9개로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때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26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3학년 전공교과목의 강의를 맡은 교수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한 뒤 협조와 동의를 구하였다. 수업이 종료된 후 학생들을 강의실에 남아있게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대해 직접 설명한 뒤 대상자가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137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한 총 13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3. 연구 도구

#### 3.1 진로만족

본 연구에서는 진로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상진[17]이 Veenhoven[27]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를 전공학과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만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은 전공만족과 학과만족이며 총 10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만족 수준이 높음을 말한다. 박상진[17]의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하위개념별로 0.90과 0.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0.87, 0.81이었다.

#### 3.2 진로선택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박상진[17]이 한국교육개발원[28]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를 전공학과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선택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은 전공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 전공관련 학습에 대한 선호, 전공관련 활동

의 참여이며 총 13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전공관련 학습을 선호하며 전공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말한다. 박상진[17]의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하위개념별로 0.73, 0.82, 0.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0.80, 0.87, 0.84였다.

#### 3.3 전공학업 적응

본 연구에서는 전공학업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상진[17]이 Baker와 Siryk[24]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를 전공학과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공학업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은 전공학업 수행(학업적 노력의 효과)과 전공학업 집중(학업에 대한 몰입정도)이며 총 10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후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학업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박상진[17]의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하위개념별로 0.75, 0.7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0.76, 0.84였다.

#### 3.4 내적동기

본 연구에서는 내적동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Harter[29]의 내적동기 평가 척도 중 김우영[30]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도전적 과제 선호 성향, 호기심에 의한 학습 참여 성향, 독자적 학습과제 완성 성향의 3가지 하위개념에 대해서만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동기가 높음을 말한다. 장기완[25]에서 동일한 검사 설문지의 신뢰도  $\alpha$ 계수가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0.82이었다.

#### 3.5 문제해결력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Heppner와 Petersen[31]이 개발하고 장익수[26]가 수정 보완한 문제해결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접근-회피스타일, 자기통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26]에서 신뢰도  $\alpha$ 계수는 0.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 계수는 0.93이었다.

### 3.6 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실습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내 실습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1문항씩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에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학업 적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도와 진로만족과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전문대학 간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131명으로 연령, 종교, 휴학 경험, 편입 여부, 거주 형태, 학과선택 동기, 출신고교 계열의 차이에 따른 진로만족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차이 (N=131)

특성	구분	N(%)	M(SD)	t/F	p
연령	21-23세	110(84.0)	3.98(0.51)	1.139	.324
	24-26세	12(9.1)	4.15(0.51)		
	27세 이상	9(6.9)	3.81(0.53)		
종교	유	71(54.2)	4.05(0.52)	1.490	.139
	무	60(45.8)	3.91(0.50)		
휴학 경험	유	7(5.3)	3.90(0.26)	-0.817	.435
	무	124(94.7)	3.99(0.52)		
편입 여부	편입함	23(17.6)	4.07(0.55)	-0.863	.395
	편입안함	108(82.4)	3.97(0.51)		
거주 형태	부모님 동거	100(76.3)	3.96(0.52)	-1.044	.301
	기타	31(23.7)	4.07(0.50)		
학과선택 동기	본인 선택	97(74.0)	4.02(0.49)	1.299	.200
	타인 권유	34(26.0)	3.88(0.57)		
출신고교 계열	인문계 문과	89(67.9)	3.98(0.58)	0.124	.883
	인문계 이과	40(30.5)	4.01(0.36)		
	상업계	2(1.5)	3.85(0.07)		

### 2. 진로만족,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학업 적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과 실습만족 정도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진로만족,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학업 적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 정도를 측정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진로만족은 전공만족 3.98±.66점, 학과만족 3.99±.49점이었다. 진로선택 영향요인 중 전공관련 진로인식 4.19±.56점, 전공관련 학습선호 3.55±.66점, 전공관련 활동참여 3.50±.66점으로 진로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공학업 적응 중 전공학업 수행은 2.67±.67점, 전공학업 집중은 3.00±.76점으로 전공학업 집중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들의 내적동기는 3.66±.49점이었으며 문제해결력은 4.26±.50점을 나타냈다. 실습만족도는 교내실습 3.82±.68점, 임상실습 3.76±.72점으로 교내실습이 높았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진로만족,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학업 적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도 점수 (N=131)

		Min	Max	Mean	SD
진로만족	전공만족	1.60	5.00	3.98	.66
	학과만족	3.00	5.00	3.99	.49
	계	2.50	5.00	3.99	.51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진로인식	2.00	5.00	4.19	.56
	전공학업선호	2.00	5.00	3.55	.66
	전공활동참여	1.67	5.00	3.50	.66
	계	1.89	5.00	3.75	.52
전공학업 적응	전공학업수행	1.00	4.20	2.67	.67
	전공학업집중	1.00	5.00	3.00	.76
	계	1.10	4.50	2.83	.64
내적동기		2.40	5.00	3.66	.49
문제해결력		3.00	5.00	4.26	.50
실습만족도	교내실습	2.00	5.00	3.82	.68
	임상실습	1.00	5.00	3.76	.72
	계	2.50	5.00	3.80	.61

3. 진로만족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간호학생의 진로만족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만족은 전공관련 진로인식( $r=.690, p<.001$ ), 전공관련 학습선호( $r=.666, p<.001$ ), 전공관련 활동참여( $r=.537, p<.001$ ), 전공학업 수행( $r=.231, p=.008$ ), 전공학업 집중( $r=.508, p<.001$ ), 내적동기

( $r=.357, p<.001$ ), 문제해결력( $r=.452, p<.001$ ), 교내실습 만족도( $r=.476,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r=.410, p<.001$ )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관계수는 .231에서 .690로서 0.8이하이므로 요인 간에는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표 3].

4. 간호학생의 진로만족 영향요인

간호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전공관련 진로인식, 전공관련 학습선호, 전공관련 활동참여, 전공학업 수행, 전공학업 집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교내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의 9개 변수[표 3]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회귀모형을 제시하였다[표 4]. 첫 번째 모형은 진로선택 영향요인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델로써, 진로선택 영향요인의 3개 하위영역인 전공진로인식( $t=6.071, p<.001$ ), 전공학습선호( $t=4.705, p<.001$ ), 전공활동참여( $t=2.144, p<.001$ )가 모두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영향요인은 진로만족의 59.3%

표 3. 진로만족과 관련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진로만족	1	2	3	4	5	6	7	8	9
진로만족		1.000									
진로선택 영향요인	1.전공진로인식	.690 (.001)	1.000								
	2.전공학업선호	.666 (.001)	.565 (.001)	1.000							
	3.전공활동참여	.537 (.001)	.475 (.001)	.544 (.001)	1.000						
전공학업 적응	4.전공학업수행	.231 (.008)	.143 (.104)	.312 (.001)	-.048 (.584)	1.000					
	5.전공학업집중	.508 (.001)	.398 (.001)	.446 (.001)	.259 (.003)	.591 (.001)	1.000				
6.내적동기		.357 (.001)	.347 (.001)	.474 (.001)	.407 (.001)	.194 (.026)	.303 (.001)	1.000			
7.문제해결력		.452 (.001)	.425 (.001)	.479 (.001)	.337 (.001)	.291 (.001)	.313 (.001)	.667 (.001)	1.000		
실습만족	8.교내실습	.476 (.001)	.357 (.001)	.479 (.001)	.300 (.001)	.273 (.002)	.284 (.001)	.290 (.001)	.272 (.002)	1.000	
	9.임상실습	.410 (.001)	.344 (.001)	.422 (.001)	.393 (.001)	.123 (.160)	.258 (.003)	.197 (.024)	.183 (.036)	.525 (.001)	1.000

\* ( ) 내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표 4.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 예측모형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진로인식	.389	.425	6.071	<.001	.350	.383	5.535	<.001	.337	.368	5.386	<.001
	전공학습선택	.269	.345	4.705	<.001	.219	.281	3.797	<.001	.179	.229	3.002	.003
	전공활동참여	.116	.147	2.144	.034	.120	.153	2.299	.023	.117	.149	2.273	.025
전공학업적응	전공학업집중					.128	.190	3.083	.003	.122	.181	2.968	.004
실습만족도	교내실습									.099	.139	2.263	.025
Adj R2		.593				.618				.630			
F		64.012				53.590				45.305			
p		<.001				<.001				<.001			

(F=64.012,  $p<.001$ )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전공학업 적응에서 유의하였던 전공학업 수행과 전공학업 집중을 추가하였을 때 진로만족의 61.8%(F=53.590,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공학업 집중( $t=3.083$ ,  $p=.003$ )이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공학업 수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형은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임상실습 만족도와 교내실습 만족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

Dubin-Watson통계량이 2.082~2.232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488~.769로 0.1이상이며, 분산 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 VIF)도 1.300~2.049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 IV. 논의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진로만족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99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박상진[17]의 연구에서 3.59점인 결과에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진로만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인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의 정도는 3.61~3.91점으로[13][16]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한 전문성을 지닌 전공계열과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전공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18]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의도가 높다는 윤혜미[7]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간호학생이 정작 졸업 후 현실충격의 극복과 역할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표 5. 회귀가정진단

Model	변수	Tolerance	VIF	Condituion Index	Durbn-Watson
1	진로인식	.640	1.561	14.599	2.232
	학습선택	.582	1.717	16.094	
	활동참여	.663	1.509	22.550	
2	진로인식	.615	1.625	11.015	2.082
	학습선택	.536	1.865	16.306	
	활동참여	.662	1.510	18.580	
	전공집중	.769	1.300	25.189	
3	진로인식	.610	1.640	11.904	2.086
	학습선택	.488	2.049	15.507	
	활동참여	.662	1.511	18.148	
	전공집중	.766	1.306	21.161	
	교내실습만족	.756	1.323	27.762	

만족의 63%(F=45.305,  $p<.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교내실습 만족도( $t=2.263$ ,  $p=.025$ )만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적동기, 문제해결력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세 모형의

실무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여러 직종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거나 학생들의 관심 진로분야에 대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제안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차이는 없었다. 문인오와 이경환[13]이 종교와 입학동기, 전공선택 시기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관련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전공관련 학습을 선호하며 전공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업을 잘 수행하고 전공학업에 집중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동기와 문제해결력이 높고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과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요인들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관련 진로인식, 전공관련 학습선호, 전공학업 집중, 전공관련 활동참여, 교내실습 만족도가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진로만족에 대해 6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선택 영향요인 중 전공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으로 평균 4.19점이며,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본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beta=.368, p<.001$ ). 즉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관련 진로를 선택해서 나아가 가능성을 탐색할 때, 전공관련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만족과 희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Lent와 Brown[32]이 결과기대가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호의적인 직업상을 가질수록 직업목표와 결과 추구를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진로만족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 것과 유사하

다. 따라서 교수자는 전공지식과 기술의 교육 외에도 학생들이 간호전문직의 가치를 인식하고 간호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두 번째 영향 요인으로는 전공관련 학습선호로 평균 3.55점이며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beta=.229, p=.003$ ).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조원숙[33]은 간호계열의 경우 37.8%의 학생이 전공-흥미가 일치하는 동일 유형이며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전공만족도를 비교할 때 동일유형이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며 본 연구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전공-흥미가 일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34]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진로만족에 세 번째 영향 요인은 전공학업 집중으로 평균 3.00점이며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본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beta=.181, p=.004$ ).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관련 연구에서 학습 몰입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3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학업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PBL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 등 효율적인 교수법을 적용하거나 웹 기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교수학습전략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네 번째 영향 요인은 전공관련 활동 참여를 통한 전공적응으로 평균 3.50점이며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beta=.149, p=.025$ ). 이는 동아리 활동참여가 대학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재[36] 및 교과외 활동 경험이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김정은[37]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교수자는 간호대학생들이 전공 수업 외에 전공동아리, 전공관련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적응력 향상을 통한 진로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

영향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다섯 번째 영향 요인은 교내실습 만족도로 평균 3.82점이며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beta=.139, p=.025$ ). 이는 최근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내에서 실시하는 상황기반 시뮬레이션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전공정체감이 높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13]. 그러나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므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실습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실습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임상실습이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의 영향 요인으로 전공학업 수행, 내적동기, 문제해결력은 진로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의 졸업학년 간호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만족 수준을 파악하고,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양질의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진로만족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9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실무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진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종교, 휴학 경험, 편입 여부, 거주 형태, 학과선택 동기, 출신고교 계열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관련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전공관련 학습을 선호하며 전공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업을 잘 수행하고 전공학업에 집중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동기와 문제해결력이 높고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요인들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관련 진로인식, 전공관련 학습선호, 전공학업 집중, 전공관련 활동참여, 교내실습 만족도가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진로만족에 대해 6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공관련 진로인식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의 가치 전달과 간호철학 정립을 돕기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장문영,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383-391, 2004.
- [3] 김봉환,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2006.
- [4]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간호사의 이직률과 이직사유현황*, 2009.
- [5] <http://www.kostat.go.kr/>
- [6] 윤숙희,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8권, 제1호, pp.55-72.

- 2002.
- [7] 윤혜미,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 관련 요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8] 중앙일보, 3.1 : 취업포털 사이트 인쿠르트, 2009.
- [9] 탁진국,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 변수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제21권, 제3호, pp.469-484, 2008.
- [10]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11] 방경숙, 전명희, 김현숙, 손행미, 강정희, 유수정, 권미경, 김지수, “간호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1호, pp.22-31, 2009.
- [12] 조희, 이규영,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63-173, 2006.
- [13]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 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3-91, 2010.
- [14] 권윤희, 곽오계,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229-238, 2010.
- [15] 박순주,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59-267, 2012.
- [16] 김명숙,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9-167, 2011.
- [17] 박상진,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8] 하혜숙,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19] D. Barron, E. West, and R. Reeves, “Tied to the job :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 of Health Serv Res Policy*, Vol.12, Suppl.1, pp.46-51, 2007.
- [20] 조지혜,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1] 김보경,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셀프 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2] E. A. Locke,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In M.D. Dunnette (c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 [23] 이루라,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전공흥미일치도와 진로선택유형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R. W. Baker and B. Siryk, *SACQ :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99.
- [25] 장기완, *전면 문제중심학습이 문제해결과정, 메타인지,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6] 장익수,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7] R. Veenhoven, *Happiness in Nation: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Rotterdam:Erasmus University Press, 1993.
- [28] 한국교육개발원, *학습과 일의 세계*, 1999.
- [29] S. Harter, *A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 Denver: University of Denver, 1980.
- [30] 김우영,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습자의 내적 동기, 자아개념에 따라 학업성취 및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31] P. P. Heppner and C. Peterson,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 of Counseling Psychology*, pp.66-75, 1982.

- [32] R. W. Lent, S. D. Brown, J. Schmidt, B. R. Brenner, H. Lyons, and D. Treistman,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0, pp.458-465, 2003.
- [33] 조원숙,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4]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 [35] 홍영선, *블로그를 활용한 웹 기반 협력학습에서 학습자의 몰입, 학습자 간 상호작용, 만족도, 성취도 간의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36] 고옥재,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에 따른 여가태도와 학교생활만족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7] 김정은, *한국 대학생 교육만족도의 구조적 분석 : SERVPERF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저 자 소 개

김 정 아(Jeong-Ah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4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자 간호, 질적연구, 간호교육